



# 한국 육상경기 100년의 산 증인

# 서윤복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



## 발로 천하를 제패하다

서윤복(1923년 생). 고려대 재학 중이던 1947년 제51회 미국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참가해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최고기록을 세우며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다.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후 11년 만에 쾌거였다.

\*서윤복 옹은 오랜 병환으로 직접 인터뷰가 불가능해 그가 75세에 한 인터뷰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재구성했다.

### “나는 장차 마라톤 왕이다”

서윤복이 육상경기에 입문한 것은 1936년 보통학교 5학년 때였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온 나라가 마라톤 열기로 뜨거웠을 때 달리기에 재능을 지닌 이 소년도 금메달의 꿈을 키워나갔다. 경성상업실업실천학교(현재의 숭문중학교) 야간부에 진학한 뒤로는 아현동에서 장충단까지 매일 뛰어서 통학하며 달리기 연습을 했다. 그때부터 동기들에게 “나는 장차 마라톤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책상 앞 벽면에는 “단군의 한 줄기 피”라고 쓴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대회 우승 사진을 걸어놓고 의지를 불태웠다.

### 보스턴 마라톤대회 태극기를 달고 우승의 감격

최초 그의 목표는 1940년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올림픽대회 자체가 무산되자 실망도 컸다. 1947년 고려대 1학년생 서윤복에게 기회가 왔다. 손기정의 인솔로 남승룡 선수와 함께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 1947년 4월 19일 보스턴마라톤대회에는 156명의 각국 대표 선수가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서윤복은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다.

### 힘난한 귀국길, 영웅을 맞이하는 인천항은 태극기의 물결

1947년 6월 22일 월계관을 쓴 서윤복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던 남승룡, 손기정을 맞이하는 인천항은 그야말로 태극기의 물결과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영회가 있었다. 바로 서울 시민들이 가가호호 30원씩 걷어 당시 비원에서 환영회를 열어준 것. 이 환영회를 주도한 이승만 박사는 “네가 해냈구나. 나는 몇 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신문에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너는 2시간 25분 39초를 뛰고 나서 연일 신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구나.”라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김구 선생도 인사를 온 서윤복에게 그 자리에서 ‘足霸天下(족패천하: 발로 천하를 제패했다)’라는 휘호를 써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를 끝으로 지도자의 길 걸어

그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다면 1948년 한국이 처음 태극 마크를 달고 참가한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27위에 그친 것이다. 그는 1949년 봄 은퇴와 동시에 모교인 숭문중학교에 육상경기부를 설치하고 지도자의 길어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35분 58초로 2위를 한 송길운을 키워냈다. 마라톤 인생 서윤복. 마라톤은 그에게 조국이었고, 삶 그 자체였다. 우승을 했으면서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아야만 했던 손기정 선수의 한을 서윤복은 풀어주었다. 그가 이룩한 위업은 위축된 국민 모두의 가슴에 한없는 긍지를 심어준 일대 사건이었다.



1947년 4월 19일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1위로 들어오는 서윤복.

# 함기용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



## “하고자 하는 철칙이 있어야”

**함기용(1930년생).**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모든 경기를 망라해 국제무대에서 태극기를 달고 우승한 최초의 인물이다. 손기정은 일제강점기에, 서윤복은 미 군정기에 우승했고,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는 대한민국 건국 직 전에 열렸다. 그럼에도 함기용은 그 흔한 훈장 하나 받지 못했다. 좀처럼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이 대목에선 섭섭함이 묻어 나왔다.

### 한창 때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달리기를 그만두셨는데.

“배고픈 운동이었는데 잘됐지 뭐. 허허. 1951년 대구에서 헬싱키 올림픽대회 최종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회 2주일 전에 오른쪽 다리가 안 좋아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마비가 온 거라. 3개월을 치료하고 다시 석 달이 지나 완쾌됐는데 운동은 못하게 됐지. 그래도 다시 걷게 됐으니 하늘이 도운 게지.”

### 보스턴에서 세 차례나 걷다 뛰다 했음에도 우승했는데 스피드에 자신이 있으셨나요?

“젊어서 겁이 없었던 게지. 힘의 분배를 몰랐어요. 스피드가 많이 붙긴 했지만, 25km 지점까지만 해도 서윤복 선배보다 빨랐으니까. 일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몸이 왼쪽으로 밀리더라니까. 추월하는 선수가 있었다면 기권했을 거야. 런던 올림픽대회엔 후보로 갔는데, 열일곱이라 몸도 좋았고 겁도 없었지. 대회에 앞서 20km 기록대회에서 최윤철 씨 다음으로 2등을 했어. 우승자 하고도 뛰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참가했으면 일을 냈을 거야. 허허.”

### 은퇴 이후엔 어떠셨나요?

“은행에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어요. 지점장도 했고, 그 시절 한국은행, 한일은행, 기업은행 등이 육상경기부를 창단했어요. 현역에선 물러났지만 마라톤 재건 의지는 충만했지. 이후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전무, 수석부회장 등 12년을 봉사했지. 그때 강조한 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인화, 다음은 경기력 향상, 그리고 은행시절 했던 것처럼 직장 육상경기부 창단이었지.”

### 체육계 후배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내 의견은 2009년 한국 국가대표 단거리 코치를 했던 자메이카의 리오 알만도 브라운의 생각과 일치해. 선수들이 대표팀 차출을 기피하고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해서도 갖은 핑계로 기권하려는 행태가 사라져야 해. 우리 때야 민족관, 국가관 하나로 뛰었지. 요즘이야 돈을 풀어서라도 뛰게 하려니 서글프지.”

### 한국 육상경기 발전을 위해 고언(苦言)을 하신다면.

“쓴소리가 아니에요. 원로들의 말을 조언으로 들어야 하는데 잔소리라고 생각하니……. 집행부, 지도자, 선수가 좀 더 민족관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기탄없이 여러 좋은 의견을 수용해야 돼요.”

깔끔하고 솔직한 이미지의 함기용 옹. 그는 “모든 게 미쳐야 이뤄진다.”고 역설했다. 열성적으로 하고자 하는 철칙을 갖고 임해야 우리 육상경기가 중흥하고 스타도 나온다는 것이다.



함기용 옹이 보스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다시 받은 금메달.

# 최윤칠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1954년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1500m 우승)



## 살아 있는 스포츠맨십의 주인공

**최윤칠(1928년생)**. 1948년 무더위 속 런던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최윤칠은 코치진의 물 섭취 금지 지시로 주경기장을 눈앞에 두고 탈진하고 만다. 이듬해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는 코치진 구성을 둘러싼 대한육상경기연맹의 내분으로 도쿄까지 갔다가 허무하게 돌아왔다. 다시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3위를 하고, 2년 뒤 헬싱키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메달을 딸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앞서 간 선수 수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스퍼트가 늦어 천금 같은 메달을 놓치고 말았다.

### ↳ 불운의 마라토너라고들 합니다. 아쉬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다 운수인 거라, 허허. 나라 형편이 안 좋으니 국제대회에 한 번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지. 전쟁까지 겪었잖아요. 난리 통에 연습할 데나 있겠어? 런던 올림픽대회에선 내 기록이 외국 선수들보다 좋아서 정말 기뻐했는데……. 본인의 운, 나라의 운, 경기 당일 컨디션, 날씨, 코스 등이 고루 맞지 않으면 천하의 누구라도 기록 못 내요.”

### ↳ 메달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교과서에 나오셨는데요.

“보스턴마라톤대회 2주 전에 경인역전경주대회가 있었어요. 코치진의 주문으로 어쩔 수 없이 20km를 뛰고 보스턴에 갔더니 다리에 이상이 왔지. 절뚝이며 달리다 함기용, 송길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30km 지점까지 외국 선수를 지치게 할 테니 자기 페이스대로 뛰라 했지. 한국 학생의 스웨터까지 빌려 입고 이를 악물고 달렸어. 피니시라인 지점에서 쥐가 났는데 앞에 한 선수가 있기에 100m 뛰듯 냅다 달려서 3착으로 들어왔어요. 희생을 감수한 내 레이스가 귀감이 됐던지 ‘살아 있는 스포츠맨십’이라며 교과서에 실렸지.”

### ↳ 중·장거리 막론하고 뛰신 철각이셨는데요.

“1954년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에선 1500m, 5000m, 1만m 세 종목을 하루 걸러 달렸어요. 첫날 1500m에서 우승하고 둘째 날 5000m를 달리는데 일본 선수의 기량이 좋았고 첫날 피로가 겹쳐 준우승을 했지. 셋째 날 1만m에선 최충식군이 우승했는데, 기량이 좋았던 일본 선수들을 6000m까지 유인해 달리다 기권했지. 트랙 밖에 있는 날 보고 오버페이스한 일본 선수들이 당황한 거라. 4×400m 릴레이는 도맡았고 400m도 49초대에 달렸다고. 1990년대 선수촌에서 중거리 지도를 했는데,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4×400m 릴레이 레이스에서 우리가 우승했잖소? 내 인생에 그런 벽찬 경험은 다신 없을 거야.”

### ↳ 육상경기계나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한육상경기연맹 1년 예산이 한 대기업 육상경기선수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성적지상주의에 물든 소년체전이 더 문제야. 어린 학생들에게 성인교육을 시킨다니까. 2, 3년 만에 좋은 싹이 시들어버려요. 중학교 때는 놀이훈련을 시켜야 해요. 지도자들도 소리만 지르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하고.”

“기자 양반, 거 사진 한 장 보내 주시오. 영정 사진으로 쓰려니까니.” 10여 년 전까지 매일 10km 달려 지구 2바퀴를 뛰었다는 최 윤의 목소리는 촬영하는 날 스튜디오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1954년 제2회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최윤칠.

## 최충식 한국체육인회 부회장(1954년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1만m 우승)



### “빈틈없는 지도자 양성부터”

**최충식(1931년생)**. 학자풍의 노신사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1954년 5월 5일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장. 당시엔 마라톤이 채택되지 않아 남자 1만m가 대회 마지막날 하이라이트였다. 17바퀴를 돌았을까. 중국 선수가 독주한 가운데 최윤철이 기권하자 일본 선수들이 앞질러 나갔다. 세 바퀴 남았을 무렵, 최충식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일본 선수들을 제쳤다. 그리고 100m나 앞선 중국 선수를 800m 레이스 이상의 속도로 따라잡아 15m 거리를 두고 극적으로 우승했다. 관중들의 환호 속에 대미를 장식한 것이다.

#### ☞ 당시 상황이 상당히 극적이었을 텐데요?

“내가 랭킹 5위였는데, 일본 선수들의 기량이 좋았어요. 특히 최윤철 씨를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최 선수가 기권을 하니깐 ‘나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오버페이스가 된 거요. 필사적으로 달려 마지막 한 바퀴 남기고 멈춰 섰는데 열광하던 장내가 조용해진 거야. 모 기자는 내가 그걸 피니시라인으로 착각했대. 지친 거야. 그렇게 달렸으니, 200m 남기고 다시 정신 차려 전력을 다하고 쓰러졌어요.”

#### ☞ 큰 대회를 앞두고 1년에 일곱 차례나 장거리 레이스를 뛰었다면서요?

“어리석은 일이었죠. 1957년 봄 보스턴마라톤대회를 1년 앞둔 무렵이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거기에서 보스턴 선발전, 앞서서 멜버른 올림픽대회에서도 뛰었으니, 또 멜버른 대회를 코앞에 두고 20마일을 달렸어요. 자토펙이 뛰는 걸 보고 말아야. 헬싱키 올림픽대회 때도 1주일 전에 20마일을 뛰었지. 보스턴마라톤 때도 그랬지. 큰 대회 앞두고 너무 힘을 뺐어. 그게 톡톡히 경험으로 살아서 나중에 애들은 잘 가르쳤어. 허허허.”

#### ☞ 뼈아픈 경험이 선수 지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1969년 도쿄마라톤대회 감독을 시작으로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 심판장,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트랙 경기 심판장을 했는데, 다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였는데 한국인으론 내가 유일했어요. 1991년 폴란드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단장도 했고. 선수들을 가르치던 12, 13년은 집안을 돌볼 틈이 없었지. 지도자로서 희생을 한 거요. 1970년대 다시 공부해서 한국체대, 용인대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

#### ☞ 한국 육상경기계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국가대표 훈련단 감독 시절 경험인데, 합동훈련으로 훈련 캠프를 키우고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해요. 이제야 그걸 한다잖아요? 나의 선수 시절에 빗대어 볼 때 지도자 양성도 아주 중요하지요. 성실하고 빈틈없는 지도자 말이에요. 정상으로 가는 길에 안이한 생활로는 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선수들은 우선 역전경주에 내보내야 해요. 끝까지 해도 여기서의 경험이 훗날 제3의 힘이 될 수 있거든. 특히 장거리 땀 때 힘을 주고 빼는 균형을 익히게 돼 나중에 제 기량을 펼칠 수 있어요.”

예정보다 시간을 한참 넘긴 인터뷰는 최 옹의 열변 속에 마무리됐다. 그리고 어둠이 내린 귀가길.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빠진 게 있는데, 학교체육 이거 중요해요. 국력과도 같은 거라고.” 최충식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은 2012년 6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1954년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1만m에 참가한 최충식.

# 임종우 원로 육상인(195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3위)



## “육상경기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야”

**임종우(1931년생).** 그의 달리기는 동아마라톤대회와 인연이 깊다. 중학 시절부터 8차례나 참가했다. 14년 만에 부활된 1954년 제25회 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고, 이듬해 제26회 대회서도 1위를 했다. 동아마라톤대회 사상 첫 2연패. 여세를 몰아 3연패도 가능했다. 1956년 4월 23일 제27회 대회에서는 당대 철각 한승철, 이창훈과 3파전을 펼친 끝에 3위. 레이스가 치열했던 만큼 3위까지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듬해 제1회 홍콩 3만m 경기에서 트랙을 75바퀴 돌아 우승했고, 그해 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3위로 한국 마라톤의 자존심을 지켰다.

### 기억에 남는 대회를 꼽는다면?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였는데, 줄곧 일등으로 들어오다 결국 4위를 한 거죠.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도 제 성적을 못내 아쉬웠지요. 먹고살기 힘든 판에 육상경기하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당시 신던 ‘대륙육상경기화’라는 게 싸구려 가죽에다 자동차 타이어로 껴매 못을 박아 쓴 건데, 탄력이 없어 오래 뛰다보면 물질이 생겨요.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도 이 신발을 신고 달리다 물질이 생겨서 고생했지요.”

### 육상경기 명문 양정 출신이시죠?

“네, 어린 시절부터 잘 달렸는데, 중학 시절 마라톤에서 3등을 했어요. 그때 눈에 띈 거죠. 전쟁이 나고 종합고교를 거쳐 양정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한 셈입니다. 그런 다음 경희대에 진학해서 장거리 주자로 두각을 나타냈지요. 특무대도 거쳤는데, 그 시절 경부역전경주대회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순 자갈밭을 달리는 거였어요. 그것도 11월에 달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었죠. 허허.”

### 은퇴 이후 줄곧 체육교사로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임춘애 선수 아시죠? 내가 그 선수를 초등 시절부터 눈여겨 보고 성남여중으로 스카우트했어요. 다른 학교로 전근 가기 전까지 1년 정도 지도했습니다. 씩이 보였어요. 할머니, 어머니, 쌍둥이 남자 형제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 모로 도와주려고 애를 썼죠. 고명상고로 전근 가서 육상경기부를 맡았는데 당시 겨울 상대가 없을 정도였어요. 주로 어린 선수들을 많이 가르쳤죠. 육상경기부 없는 학교에 가서 육상경기부를 만들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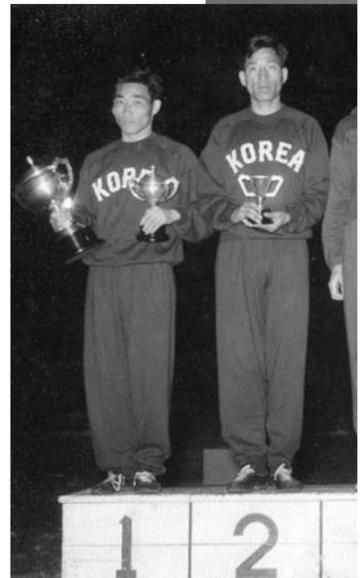
### 장거리와 마라톤의 활성화를 위해 조언을 하신다면?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은 인내의 경기예요. 힘과 인내를 조절해야 하는 거죠. 그런 만큼 머리를 써야 해요. 장거리는 코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거리와 달리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 육상경기계 선후배들 사이에 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요. 선배들의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말을 아끼는 임 씨. 그런 그에게도 자랑거리가 있다. 그의 지갑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신문 기사가 있다. 보스턴마라톤대회가 끝난 뒤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찍은 사진, 체육교사로서 헌신했다는 기사. “통금 시절 이것만 보여 주면 무사통과였어. 허허.”



동아마라톤대회를 2연패한 임종우.

# 한승철 대한육상경기연맹 참여(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5000m 은메달)



“운동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요”

**한승철(1931년생)**. 평안남도 용강이 고향인 그는 광복 이후 북한 장거리계의 1인자였다. 노동절, 8·15 경축, 시도 대항 전국체전 등 5000m, 1만m 선두엔 늘 그가 있었다. 공산권 국가들이 모여 펼친 체코 민족축제에도 대표로 뽑혔다. 기독교 집안이란 출신 성분 탓에 탈락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의 달리기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일주일이면 다시 찾을 것 같던 고향은 60년이 되도록 밟지 못하고 있다. 혈혈단신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긴 그에게 다시 달리기가 찾아온 건 20대 중반 때였다.

↳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초등학교가 집에서 산길로 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 길을 매일 걷다 뛰다 하니 인내력이 강해졌던 모양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내 선발대회에서 상급생을 제치고 2등을 했어요. 이후 평양농업학교에서 역전경주대회 대표로 나간 게 발판이 됐고, 그 시절 5000m와 1만m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 **전쟁 중에 달리기 인생을 접을 뻔하셨는데.**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 갖은 고생을 다했지. 그저 살기 위해서. 그러다 해병대에 지원했는데, 먹는 게 형편없어 각기병에 걸렸어요. 2년 7개월을 전장에 있었는데, 차라리 지뢰를 밟았으면 할 때도 있었더랬어. 전쟁이 끝나고 1955년 한국일보 주최로 육해공 3군 대항 부산~서울 역전경주가 있었는데 해병대도 참가했고, 선발전에서 단연 눈에 띄어 두각을 나타냈어요. 이듬해엔 동아마라톤에서 3파전 끝에 이창훈, 임종우를 제치고 우승했지.”

↳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입상하고 도쿄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셨는데요.**

“1957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5위를 했어요. 같이 간 임종우는 3위를 했고, 시합 전날 열병을 앓았어요. 병원을 가자니 입원할 것이고……. 수면제만 먹었더니 10마일 지점에서 배가 고프더라고. 20마일까진 3파전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아.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에선 5000m 2등, 1만m 4등을 했지.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제대로 먹었으면 큰일 낼 수 있었지요. 하하.”

↳ **은퇴 이후엔 지도자 생활을 하셨지요?**

“31세에 은퇴한 뒤 코치 생활을 오래 했지요, 여러 차례 아시아경기대회와 LA 올림픽대회 중·장거리 감독을 하고 체육고교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했지요. 요즘 보면 육상경기는 농구나 인기 종목 등에 선수를 다 뺏겨요. 스포츠가 평준화 돼야 하는데 이제 어디 되돌릴 수 있겠소?”

↳ **한국 육상경기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제무대에서 당장 성적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예요. 운동이란 거 장기적으로 봐야 하거든. 지난 10여 년간 육상경기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말이지. 외국인 코치를 백안시하는 일선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고.”

역사에서 가정이란 부질없는 것이라고들 한다. 여든 노구에도 힘찬 이미지가 돋보인 한웅이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제대로 운동했다면 과연 큰일을 냈을까.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5000m에서 은메달을 딴 한승철.

# 주형결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 마라톤 국가대표)



## “올림픽대회 참가만으로도 영광”

주형결(1939년생). 그야말로 '감격시대'였다. 1965년 한일협정을 앞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치중하던 1964년, 박정희 정권은 일본 도쿄 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대거 파견하기로 한다. 치열한 대표 선발전이 펼쳐졌다. 마라톤에 참가한 주형결도 열심히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 참가 당시를 회고하면?

“올림픽대회 선발전이 치열했어요. 재선발전까지 치렀으니까요. 최종 경기에서 4등을 하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할 뻔 했는데 운이 좋았지요. 당시 마라톤은 아베베 세상이었어요. 스타트할 때 보고 뛰면서도 보고 그게 다였어요.(웃음) 우리 마라톤은 손기정 선배 이후 침체기였어요. 물론 마라톤 외에 대다수 종목이 세계기록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지만……. 도쿄 올림픽대회에는 이상훈과 김연범 선수, 저까지 3명이 나갔는데, 기록은 형편없었죠. 그래도 참가 그 자체로 성공한 거였어요. 등수는 생각지도 않았죠. 모든 종목이 다 그랬어요.”

### 마라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했죠?

“마라톤이라고 해 봐야 전국체육대회가 다였어요. 동아마라톤도 정규 코스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국체육대회 마라톤은 고등부, 대학부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중학생까지 함께 뛰던 시절이었어요. 여자는 마라톤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지요. 선수들 개개인의 사정은 더 어려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이었으니까. 저도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 학비를 면제시켜 준 다기에 서울로 올라와서 마라톤을 한 거예요.”

### 한국 육상경기의 산증인으로서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육상경기 분야에서 해볼 건 다 했습니다. 중학교 때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4등을 했어요. 덕분에 발탁돼 육상경기를 하면서 국가대표로 뽑히고……. 제가 국가대표 시절에는 태릉이 아니라 동승동에 선수촌이 있었어요. 국가대표라고 합속시켜 주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 후 한전 코치, 감독을 거쳐 육상경기연맹에서는 전무로 시작해 지금까지 육상경기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서 차세대 육상경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2기째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를 변화시키려면 지도자부터 달라져야 해요. 태도나 정신 말이죠. 그래야 후배들이 따라오거든요. 한국신기록에 큰 포상금도 거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가 변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애 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략적으로 짜고 있으니까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해보자는 기운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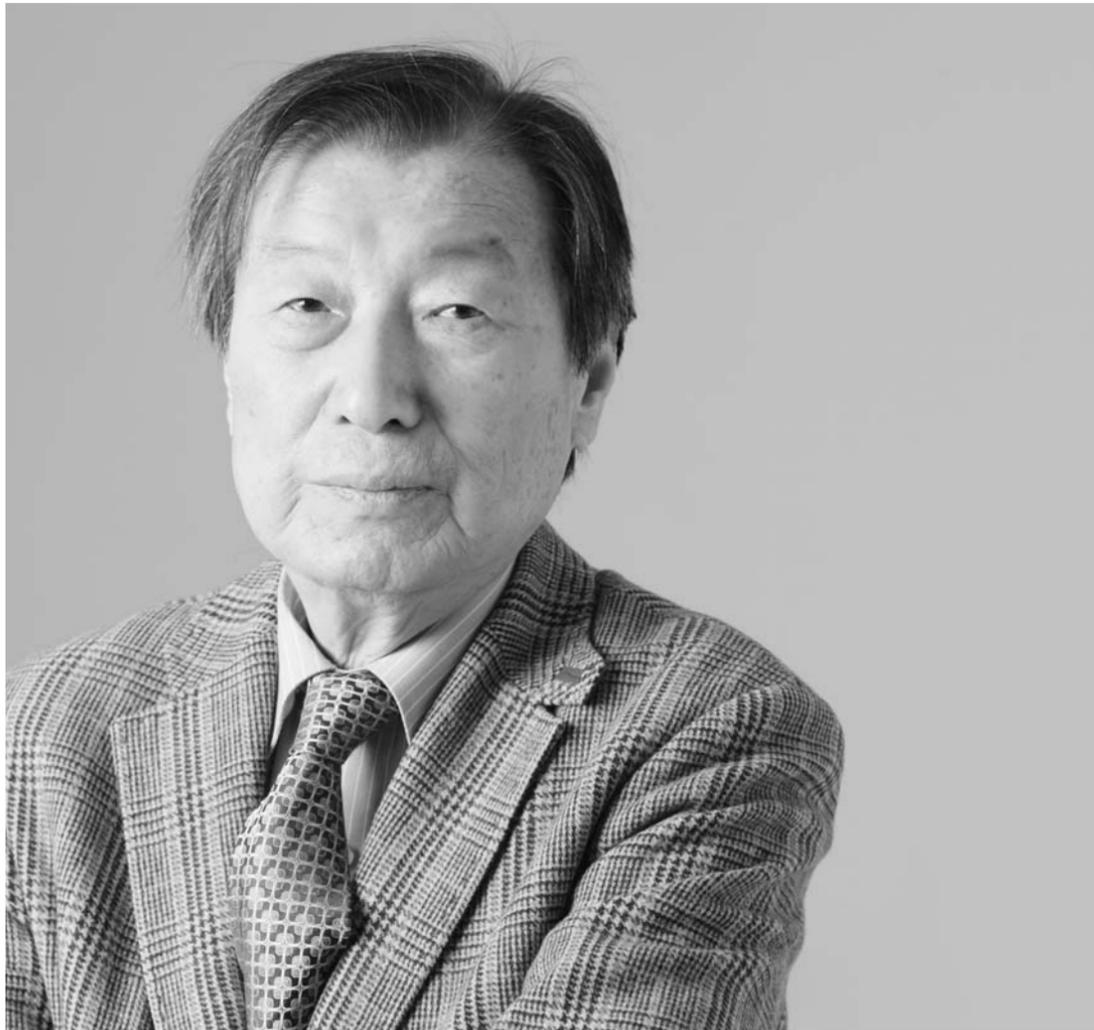
70평생 육상경기만 생각하며 달려온 주형결 부회장. 아직도 46년 전 도쿄 올림픽대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 마라톤에 참가했던 주형결(오른쪽).

# 양재성

육상경기 최초 방송 해설자



## “경기장에 나가면 뻘뻘해져야 해요”

**양재성(1935년생).** 한국전쟁 직후 한국 육상경기도 폐허였다.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 그렇다고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다. 양재성도 달렸다.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마라톤은 꼭 완주하고 싶었다. 그의 육상경기 인생도 그랬다. 해병대와 실업팀 생활을 거쳐 교직, 심판, 지도자, 육상경기연맹 전무·부회장까지. 마라톤처럼 달렸다. 한때 세계 각지의 육상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때마다 단장을 맡아 '직업이 단장'이었던 적도 있다. 무엇보다 십수 년 동안 육상경기 관련 방송 해설을 맡고 《서기원·양재성의 마라톤 이야기》를 써서 육상경기 대중화에 기여했다.

### ☞ 선수 생활 당시의 한국 육상경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50년대에 장거리와 마라톤을 했어요. 요즘 마라톤은 스피드 개념이지만, 당시엔 완주만 하면 입상이예요. 100명 나가면 완주자는 10명 정도일 때니까. 전쟁 직후라 경제가 말도 아니고 먹지도 못해서 마라톤대회에 나가면 완주가 목적이기도 했어요. 군대에서 선수를 많이 양성했는데 해군 육상경기부에 들어갔다가 해병대로 파견을 나가 장거리와 마라톤을 했어요. 3군 대항 경기에도 나갔고 5000m, 1만m 역전경주를 많이 뛰었죠. 역전경주에서 주전 멤버로 구간상도 많이 받았고. 당시만 해도 역전경주가 장거리와 마라톤 선수의 산실이었어요.”

### ☞ 선수 생활을 거쳐 감독과 심판도 하셨죠?

“그땐 해외원정도 없었고 선수 생활을 마치면 실업팀도 없으니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중학교부터 1959년까지 한 15년 선수 생활을 했는데 워낙 생활이 어려울 때라 소질은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제대하고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육상경기연맹 일도 했는데, 코치와 감독을 거치고 심판도 봤어요. 선수단이 구성되면 단장직을 열 차례 수행했죠. 제일 큰 것이 1997년 아테네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였는데 이진택 선수가 높이뛰기 결선에 첫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999년, 2001년, 2002년에도 단장직을 수행했고…….”

### ☞ 방송 해설도 하고 마라톤 관련 책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 정도 KBS에서 육상경기 해설을 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대회 등 국내외 육상경기 해설을 맡았어요. 서기원 아나운서와 호흡이 잘 맞아서 함께 책도 냈습니다. 해설을 하려면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엄청 해야 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육상경기의 재미를 전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것이 나름 육상경기 대중화에 기여하지 않았나 자부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 ☞ 한국 육상경기의 미래를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육상경기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수들을 관찰하면 마라톤을 제외하고 트랙 경기에서 경기장의 함성소리에 기가 죽어요. 낮을 가린다고 할까, 숫기가 없다고 할까. 외국 선수들은 박수를 유도하고 쇼맨십도 있는데……. 그만큼 선수들을 국제대회에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적이 생기고 얼굴이 두꺼워지거든요. 경기에 나가면 뻘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무대에 우뚝 서는 선수가 되려면 경기장 분위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육상경기 대중화의 산 증인' 양재성 전 부회장이 거듭 강조한 대목이었다.



KBS의 동아국제마라톤 대회 중계에서 해설을 맡은 양재성(오른쪽).

# 홍상표 부산 육상경기연맹부회장(아시아경기대회 장대높이뛰기 2회 연속 동메달)



## “스포츠맨은 무한도전 해야”

**홍상표(1944년생)**. 장대높이뛰기 한국신기록을 17차례 갈아치우고 아시아경기대회 2회 연속 동메달, 전국체육대회 13회 연속 금메달까지. 홍상표 부산육상연맹 부회장은 한국의 '원조 인간새'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그는 한 번도 장대높이뛰기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전국체육대회에서 26년 묵은 한국기록을 깰 때 대나무 장대로 우승한 일화는 아직도 유명하다. 은퇴 뒤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경기본부장과 육상경기운영본부장을 맡으며 부산육상경기계의 대부로 불린다.

### ☞ 영원한 육상경기인으로 계속 활동 중이시군요.

“매일 오후 2~6시까지 부산 구덕운동장에 나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턱걸이 15개 이상과 팔굽혀펴기 100개는 거뜰히 할 만큼 건강합니다. 밤에는 일본어로 된 스포츠과학 원서를 많이 읽어요. 장대높이뛰기는 100m 종목과 함께 관중들의 시선을 가장 쉽게 끌 수 있잖아요. 선수가 높이 솟아오르니 스틸이 있고 스타의 기록 제조에도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죠. 저도 현역 시절에 하늘을 솟아오르는 희열, 도약을 하기 전 관중들의 격려와 박수, 훌쩍 뛰어넘었을 때의 감동 때문에 이 운동에 매료됐습니다.”

### ☞ 장대높이뛰기를 선택한 계기가 있었나요?

“낙동강 근처인 고향 김해에는 홍수가 자주 났어요. 논밭이 모래사장으로 변하고 그 가운데에 개울 하나가 새로 생겼죠. 개울을 대나무로 뛰어넘는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첫 출발로 보면 되겠죠. 처음엔 집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좋은 대나무를 구한 뒤 직접 구워 처마 밑에 말려서 사용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김해농고 2학년 때인 1961년 전국체육대회에 첫 참가해 2m 95로 5등을 했어요. 이게 내가 갈 길이다 싶었죠.”

### ☞ 훈련 여건은 열악했겠군요?

“1965년 실업팀에서 월급 4000원을 받았는데 유리섬유 장대 가격은 무려 8만원이었어요. 빛을 내고 가불해서 장대를 구입했는데 그해 광주전국체전을 일주일 앞두고 부러졌어요. 어쩔 수 없이 고향 집 헛간에 있던 대나무 장대로 경기에 나섰는데 그때 3m 86을 넘어 26년 묵은 한국기록이던 3m 70을 깬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민관식 당시 대한체육회장이 유리섬유 장대 20개를 사 줘 은퇴할 때까지 사용했고 일본 와세다대학 국비연수도 다녀왔지요.”

### ☞ 세계의 벽이 여전히 높는데, 장대높이뛰기가 한국인 체형에 맞지 않아요?

인간새 세르게이 부브카의 개인코치였던 시크비라 아르카디 코치도 한국인은 서양인에게 절대 뒤지지 않은 좋은 체형이라고 극찬했어요. 인간은 단련의 동물입니다. 단련하면 안되는 게 없어요. 한줌의 재도 남김없이 청춘을 불사를 정도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도 선수의 능력을 100% 태울 수 있도록 늘 다그쳐야 해요.

도전하지 않는 선수와 지도자는 단순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홍 부회장. 그는 자신의 기록을 지키거나 남의 기록을 깨기위 해 무한도전을 해야 하는게 스포츠맨이 한 일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원조 인간새'로 불렸던 홍상표의 1973년 장대높이뛰기 경기 모습.

# 백옥자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아시아경기대회 포환던지기 2연패)



## “밥 먹을 때도 씻덩이 들고 다녔어요”

**백옥자(1951년생).** ‘아시아의 마녀.’ 1970년대 아시아 육상경기계를 호령하던 백옥자의 또 다른 이름이다. 1970년 방콕에 이어,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포환던지기에서 2연패한 그는 이 별명이 싫지 않다. 아시아신기록을 계속 작성하니 감탄과 놀라움에서 한 동남아 국가의 기자가 붙여 주었다. 그만큼 ‘백옥자’라는 이름은 한국 육상경기계의 여성 파워를 세계에 알린 첫 신호탄이었다.

### 1970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딸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무조건 메달 획득이 목표였어요. 기록이 좋아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앞서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갔는데, 일본 선수와 시합을 많이 해서 자신도 있었어요. 196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에 참가해 큰 대회 경험을 쌓은 것도 도움이 됐고요. 먼저 동메달을 땀는데, 한국 육상경기로서 아시아 경기대회는 물론 여자 체육인으로서도 처음 딴 메달이라 무척 기뻐했어요. 나중에 금메달을 따니까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다고 환호성을 질러 주더라고요.(웃음)”

###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때는 부상으로 고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대회에 못 나갈 정도였는데 마취제를 뿌리고 나갔어요. 중국 선수들이 첫 참가한 대회였는데, 포환던지기 나온 선수가 180cm로 엄청 컸어요. 지금도 그 선수를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부상 상태로 나가서 16m 28로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니까 중국 선수가 기겁을 하더군요. 그때 다른 나라 선수들이 꽃다발도 주며 많이 축하해 줬던 기억이 나네요.”

### 포환던지기 종목은 훈련 환경도 열악했죠?

“포환던지기는 태릉선수촌이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1968년 신인으로 들어갔더니 혼자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태릉선수촌이 집이라고 생각했죠. 여자 선수도 없었고 많이 외로웠어요. 농구나 배구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운동하기 싫으면 공에 바람을 빼는데, 쇠덩어리라 바람도 못 빼서 어찌느냐고 하기도 하고.(웃음) 돌아가신 안영환 선생님께서 밥 먹을 때도 쇠덩어리를 들고 다니라고 하셔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 후배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2009년 12월 홍콩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 부단장으로 갔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뛰고 싶더라고요. 우리 때는 죽어라 운동만 했죠. 순수 아마추어로 명예만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 이상으로 했죠. 연습하다 턱 밑에 멍이 들고 피가 나도 훈련만 했죠. 먹을 것을 쉽게 구할 형편이 아니라 팬들이 가져다 준 과일을 먹었고요. 당시 농구선수이던 박신자 선배님의 부군께서 간식을 대 주기도 했어요. 지금은 선수들이 호강에 겨운지 상대적으로 연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쉽죠. 농구선수인 딸(김계령)에게도 운동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관리자 등으로 활동하는 그는 한국 육상경기의 미래를 낙관한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없죠. 감독이나 선수들이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겁니다.”



1975년 제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포환던지기에서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는 순간의 백옥자.

# 황규훈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전국선수권대회 남자 1500m 1위)



## “나의 실패를 뛰어넘어라”

**황규훈(1953년생)**. 아쉬움이 많은 현역 시절이었다. 1500m와 5000m, 1만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많은 국제대회에 초청받아 참가하긴 했지만 분명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후배들은 운동에 좀 더 전념하면서 자신보다 나은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다. 황규훈 대한육상연맹 부회장(건국대학교 감독)은 선수 시절의 아쉬움을 끊임없이 후배들에게 얘기하면서 힘든 훈련과정을 이겨내길 바란다.

### 현역 시절과 지금의 훈련 여건을 비교하면 어떠세요?

“우리가 운동할 때만 해도 포상제도 같은 건 없었어요. 영양 섭취도 형편없었고. 제반 여건이 지금처럼 좋진 않았죠. 각종 대회에 지금 같은 상금제도가 있었다면 기록이나 모든 게 낫지 않았을까요? 국제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나 올림픽대회 외에는 참가하기도 어렵거니와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선수들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오픈대회 같은 곳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백옥자 같은 선수들과 함께 갔죠. 선수단 규모가 고작 5, 6명 정도였어요. 격세지감이죠?”

### 후배 선수들과 훈련할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형그리 정신이 부족해요. 옛날에는 훈련 용품이고 급식이고 본인이 조달했는데, 요즘은 물자도 풍부하게 지원되고 체력과 영양 부분까지도 다 알아서 해 주잖아요. 코치, 감독들이 선수들 위주로 배려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아낌없이 나오는 반면 선수들은 고마운 것을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상호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예의나 인성을 밥상에서 배우곤 했지만 어느 시기부터 그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젊은 선수들이 성씨이나 돈을 너무 빨리 아는 것도 안타깝죠. 그 때문에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정상에 오르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현역 시절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죠. 그때는 훈련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실천하고 지도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선수들에게 ‘나는 이래서 성공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그러지 마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해 주죠.”

### 앞으로 한국 육상경기가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에서도 봤지만 한번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근성을 갖고 있잖아요. 잠재력 있는 선수들도 있고, 선수와 지도자가 합심해서 생각을 바꾸고,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목표를 크게 잡는다면 못 할 것도 없어요. 육상경기제도 한 목소리가 돼서 열심히 하고 국민 성원도 뒷받침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지 않겠어요? 올림픽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의 마라톤은 기록 순이 아니거든요. 우선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이 중요하고 둘째는 날씨, 지형(코스)에 따라 결정 나기 때문에 준비만 잘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로서 선수들 훈련에 여념이 없는 황규훈 감독. 그는 “고지가 바로 앞이다. 조금만 더”를 외친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훈련 여건을 감안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1976년 한국전력 소속 선수로 뛰던 시절의 황규훈.

#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31년간 100m 한국기록 보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을 상상해야”

**서말구(1955년생).** 고교 시절 육상경기 늦둥이로 입문한 그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대회 불참으로 '큰일'을 내지 못한 것이 현역 시절의 가장 아쉬운 일 가운데 하나였다. 은퇴 후 동아대학교 코치를 거쳐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플레잉 코치로 몸담기도 한 그는 현재 해군사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 **멕시코시티 유니버시아드에서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울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오랜 비행 이후 고지대 적응과 음식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타고난 식성과 강한 체력으로 현지에 빨리 적응해 경기에 임했어요. 예선과 준결선까지 거침없었어요. 기록을 계속 경신했는데, 결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기록 경신도 멈췄죠. 컨디션이 최상이어서 200m에서도 한국신기록을 수립했지만 아쉽게 여기서도 결선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대회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 **‘선수 서말구’로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대학 2학년 때였어요.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시즌오픈 육상경기 100m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처음 1등을 했습니다. 그 후 10년 가까이 우승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 **현역 시절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죠. 정말 올림픽경기에서 큰일을 한 번 치를 것 같은 느낌이었던데요. 올림픽대회를 대비해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었고 몸 상태도 최상이었어요. 한 해 전인 1979년에도 캐나다 월드컵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아시아 대표선수들과 훈련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100m에서 10초 00을 기록해 아시아 육상경기연맹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록이 당시 올림픽대회 우승기록과 같았거든요.”

☞ **한국 육상경기가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불굴의 투지나 원대한 야망 등과 같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세대는 경기에서 후배한테 지면 다음날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운동을 그만두기 싫어서라도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육상경기를 좋아하고 즐기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목표의식이 부족하고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듯합니다.”

한국 육상경기계에는 30년 이상 된 숙원이 있었다.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어찌할 수 없기에 안타까운, 바로 남자 100m 한국신기록이다.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현역 시절이던 1979년 9월 9일 멕시코시티 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경기 100m 준결선에서 세운 10초 34. 서 교수도 자신의 기록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다. 그런데 드디어 2010년 김국영에 의해 그 기록이 깨졌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계속 육상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머지않아 10초 00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배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고 육상경기를 즐기라고 조언했다. 이런 각오와 함께 말이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동네 야산은 생각지도 말고요.”



31년 동안 100m 한국신기록을 보유했던 서말구의 전성기 시절.

# 김양곤 사업증권업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 금메달)



## “육상경기 발전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달렸죠”

**김양곤(1959년생)**.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창훈이 우승한 이후, 국제무대에서 한국 마라톤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24년 뒤인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김양곤이 우승을 하며 그 오래된 한이 풀렸다. 한국 마라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 **한때 세계 정상권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가 아쉽게 육상경기계를 떠나셨지요.**

“육상경기계에선 이제 발을 댄 셈이네요. 증권 분야의 아는 분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면서, 가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우승이 한국 마라톤의 침체기를 깨는 계기였지요.**

“1980년 10월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1982년 제1회 서울 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에서 김종윤이 1등, 제가 2등을 해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권을 땀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도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참가시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지는 것도 싫어 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날씨가 더워서 후반을 바라보고 작전을 짰어요. 김종윤을 비롯해 북한, 일본 선수와 4명이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32km 지점에서 추월을 시작했어요. 성공한 거죠.”

☞ **훈련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텐데요.**

“아시아경기대회 전에 춘천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한 번은 수당을 하루에 1000원씩 더 달라고 했더니, 배부른 소리 한다고 구박을 받기도 했지요. 지금과는 엄청 다른 시절이었죠. 제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한국 마라톤이 일종의 재기를 했는데 의욕이 넘치다보니 무리를 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을 완치하지 않고 계속 대회에 나가다 보니 척추가 눌린 거예요. 3년 뒤에야 비로소 미국에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교민후원회에서 도와주셨지요. 그후 마취를 하고 땀 정도로 힘들었어요.”

☞ **운동 환경이나 여건이 엄청 바뀌었죠?**

“원로나 선배들이 계시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 얼굴 한 번이라도 보면 힘을 얻었죠. 그런데 지금 후배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배들이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얼굴을 볼 일도 없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선후배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사실 메달 따면 뭐 하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운동한 것을 후회한 적도 있지요. 차라리 기술을 배웠으면 보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더 마음 아프지요.”

김양곤은 한국 육상경기계가 선수층이 얇은 것을 아쉬워하지만 말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체육이 살아나고 체력장이 활성화돼야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한국 육상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할 당시 김양곤.

# 김복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800m 금메달)



## “세계 정상을 목표로 철저한 자기관리”

**김복주(1960년생).** 사골 소년은 일찌감치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달리기에 소질 있던 소년은 그 목표를 위해 육상경기를 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달리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렇게 꿈을 안고 달린 덕에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800m 은메달,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꿈을 이뤘다.

### 1980년대 중거리의 간판선수이셨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마라톤으로 입문해 1979년 마라톤 국가대표가 됐고 나중에 중거리로 전향했어요. 1980년 1월 미국에 가서 세계적 선수를 키워낸 루이스 코치에게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훈련을 하다 보니 목표도 크게 잡게 됐고, 자연히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1985년부터 86년 초까지 외국에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1985년 12월부터 1986년 1월까지 동계훈련 때 50km를 3번이나 땀 정도였으니까요. 트레이닝 방법을 충동원해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를 했고 앞선 대회에서 금메달을 못 딴 것도 있고 해서 이를 악물고 했죠. 목표한 것도 이뤘고 물론 그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의 정거장이라 이후엔 제가 해야 될 교수의 길에 매진했습니다.”

### 좋은 선수들도 많이 키워 내셨죠. 좋은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요?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제 생활신조가 바를 正, 길 道, ‘정도正道’예요. 지도자가 우선 바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하고 선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노력이다, 그런데 천재나 노력하는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선수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플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도 끊임없이 외국 선수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트레이닝이나 문화 습관 등을 도입해서 선수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 지도자로서도 목표를 갖고 정진하신 듯합니다.

“저는 10년마다 계획을 잡아요. 이번 10년 계획은 제대로 된 훈련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육상경기 교과서를 만든 것도 그 일환이죠.”

### 기록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육상경기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목표를 세계 정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꿈을 높게 가져야 세계와 경쟁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입니다. 지도자도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바른 자세로 선수들을 대해서 선수들의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김복주의 달리기 인생에는 ‘목표, 바른 길 그리고 자기관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지금 지도자로서, 교수로서 이 세 가지 목표를 품고 후배들과 함께 트랙을 달린다.



한국체육대학 감독 시절 김복주(왼쪽). 옆은 2000년 동아국제마라톤대회 우승자인 정남균.

## 김종윤 국민신용조합 고문(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5000m 금메달)



### “육상경기 계속할 풍토 만들어 줘야”

김종윤(1960년생). 2분 기록경기에서 엄청난 차이다. 한국 장거리의 간판이었지만 세계 수준에선 약간 밀린 김종윤은 그것을 훌쩍 무시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5000m 금메달, 1만m 은메달. 그의 메달은 한국 육상경기가 장거리에도 장점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1982년 20여 년 만에 마라톤 한국기록을 깨뜨렸고 현역 시절 5000m, 1만m, 20km 로드레이스 한국신기록을 세운 그는 은퇴 후 서울과 강릉, 제주를 오가며 유망주를 키웠다.

####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자신했나요.

“당시 일본 선수들이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나뿐 아니라 육상경기 관계자들도 제가 메달을 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뛰고 나니, 신이 도운 것 같았어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잘해야 동메달이라고 생각했는데, 관계자들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육상경기인들을 만나면 1986년 김종윤이 땀 흘린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워낙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웃음)”

#### 남자 1만m 기록(28분 30초 54)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안타깝죠. 연맹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운동을 과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본만 해도 실업팀이 100개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와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메달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연금 문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다른 운동으로 전향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뒤 코오롱에 들어가 1988년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려다 부상을 입고 은퇴하셨죠.

“당초 한국전력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코오롱그룹에서 임춘애와 김종윤을 주축으로 육상경기단 창단 계획을 세웠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고 정봉수 감독을 모시고 창단 멤버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발목을 다쳐 1년 만에 그만뒀어요. 아쉬움이 큼니다. 당시 지도자를 하면서 올림픽대회 참가의 꿈을 이뤘어야 했는데……. 지도자로 남고 싶었는데, 외부요인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요.”

#### 육상경기계 밖에서 한국 육상경기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상경기 차원에서 장기적인 포석을 만들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해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수입니다. 과거 메달을 따거나 훌륭한 노하우를 지닌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요. 김원탁, 이홍렬 등 한국 육상경기를 이끌던 선수들이 은퇴해서 농사를 짓거나 운동과 동떨어진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요. 연맹 차원에서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이런 선배들을 보면 운동하고 싶겠어요? 초·중등 선수들이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지 않고 육상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국 장거리의 간판 김종윤. 육상경기계를 떠난 지 적잖은 세월이 흘렀지만 마라톤이나 육상경기대회가 있는 날이면 여전히 촉각이 곤두선다. 그만큼 미련도 남고 후진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픈 바람은 여전하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5000m에서 우승한 김종윤(맨 왼쪽).

# 장재근 대한육상경기연맹 트랙부문 기술위원장(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200m 금메달)



## “큰 선수가 되려면 인성이 중요”

**장재근(1962년생).** 10여 년 전, 왕년의 육상경기 스타는 느닷없이 에어로빅시범단 마스터로 변신해 매일 아침 온 국민을 흔들게 만들었다. 그러던 그가 대한육상경기연맹 트랙부문 기술위원장으로 단거리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다. 첫 목표는 요지부동하던 한국 남자 100m 기록을 깨는 것. 시간이 걸릴 것이란 애초 예상과 달리 성과는 빨리 나타났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 육상경기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 지금, 장재근이 다시 달린다.

☞ **남자 100m 기술위원장으로 31년 만에 한국기록이 깨진 것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텐데요.**

“25년 전 제가 도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깨지 못했고, 31년이나 멈춰 섰던 기록이 2010년 김국영 선수에 의해 깨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해 한국 육상경기계가 모두 기뻐했어요.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제 25년 전 제가 작성한 200m 한국기록(20초 41)도 깨진다면 더할 나위 없죠.”

☞ **그동안 단거리 종목이 부진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건은 다 돼 있어요.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 선수들이 해야 할 이유 즉 목적의식이 없었던 거죠. 선진 노하우를 전수받으려 해도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뒤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나가라니까 '시즌 다 끝났는데 무슨 대회를 또 나가라는 거냐'는 식이죠. 나태한 정신력을 타파하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당근도 주겠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선수들에게는 경종을 울릴 참입니다.”

☞ **선수 시절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을 텐데요.**

“우리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200m에서 우승했으니까요. 아쉬웠던 점은 100m에서 10초 35로 한국기록을 깨지 못하고 은퇴한 거죠. 문턱까지 갔다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뭐 지금 우사인 볼트에 비하면 걷는 수준이지만요. 하하. 돌이켜 보면 체계적인 훈련 지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스타트만 빨리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이해하게끔 기록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과학적인 지도 방법을 꾀할 생각입니다.”

☞ **잠시 프로야구단에서 뛰신 적도 있죠?**

“아뇨. 제가 직접 뛰는 게 아니고 해태 타이거즈에서 4년 정도 주루 코치를 했죠. 대주자로는 서말구 선배가 롯데 자이언츠에서 한 번 뛰었죠. 도루라는 게 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축구에서 공을 몰고 달릴 때도 스프린터가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육상경기 선수들은 멈추는 걸 못해요. 하하. 종목마다 특성이 있는 거죠.”

장재근은 스포츠 심리학 박사다. 그래서 그는 심리를 강조한다. 선수들이 큰 경기장, 많은 관중 앞에서 뛰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훈련과 경기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경기력 향상을 좌우하고 무엇보다 오래가려면 '인성'이 중요하다고 선수 시절 자신과 비교하며 거듭 강조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200m 예선에서 뛰고 있는 장재근.

# 김재룡 한국전력 육상경기단 감독 (1994년 보스턴마라톤대회 2위)



## “스스로 특별한 선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재룡(1966년생).** 한국 마라톤의 간판선수였다. 1987년 조선일보마라톤 우승을 시작으로 1991년과 1992년 동아마라톤 우승을 거쳐 1993년에 만개했다. 보스턴마라톤대회 2위, 독일 슈투트가르트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4위를 했다. 이봉주, 황영조 등과 한국 마라톤의 전성기를 연 그는 지금 한국전력 육상경기단 감독으로 한국 마라톤의 중흥을 위해 '특별한' 선수들을 키우고 있다.

### ☞ 지도자가 돼 가르친다는 것은 선수 시절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 한국 마라톤은 침체이고 위기입니다.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의 부진이 아쉽고 제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어요. 선수들은 적게 훈련하고도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마라톤은 정직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거죠. 선수들이 많이 뛰도록 유도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저 역시 요령을 피웁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말이죠. 지도자, 참 쉽지 않아요.”

### ☞ 1987년 조선일보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우승할 당사가 기억 나세요?

“한국최고기록을 세웠는데 2시간 13분 35초. 이홍렬 선배의 기록을 뛰어넘었어요. 정신이 없었죠. 기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뛰었냐고 물었는데, 으레 1등한 대회는 아무 생각 없이 뛰니다. 못 뛰었을 때가 생각이 많죠. 당시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30만 원짜리 상품권까지 주고……. 1등 했다고 시골에서 잔치도 했어요. 돼지도 잡고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 ☞ 1993년 보스턴마라톤대회 2위는 아쉬움이 크죠?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대회 때, 페이스가 꽤 좋았어요. 3등 이내, 못 뛰어도 6위 안에는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너무 많이 한 탓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보스턴마라톤대회는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시차를 맞추려고 낮엔 커튼 쳐놓고 자고, 밤 12시 30분에 나가 새벽 3시 30분까지 뛰었어요. 1등은 목표가 아니었고 3위 안에 들고 싶었어요. 세 번째로 가고 있는데, 39km 지점에서 3등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스피트를 했죠. 1등과 10초 차이였어요. 가만히 보니 ‘또 한 번 기회를 놓쳤구나’ 싶더라고요. 뛰고 나서 처음으로 만족했지만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온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해요.”

### ☞ 2000년 이봉주 선수의 한국최고기록 이후 마라톤이 답보 상태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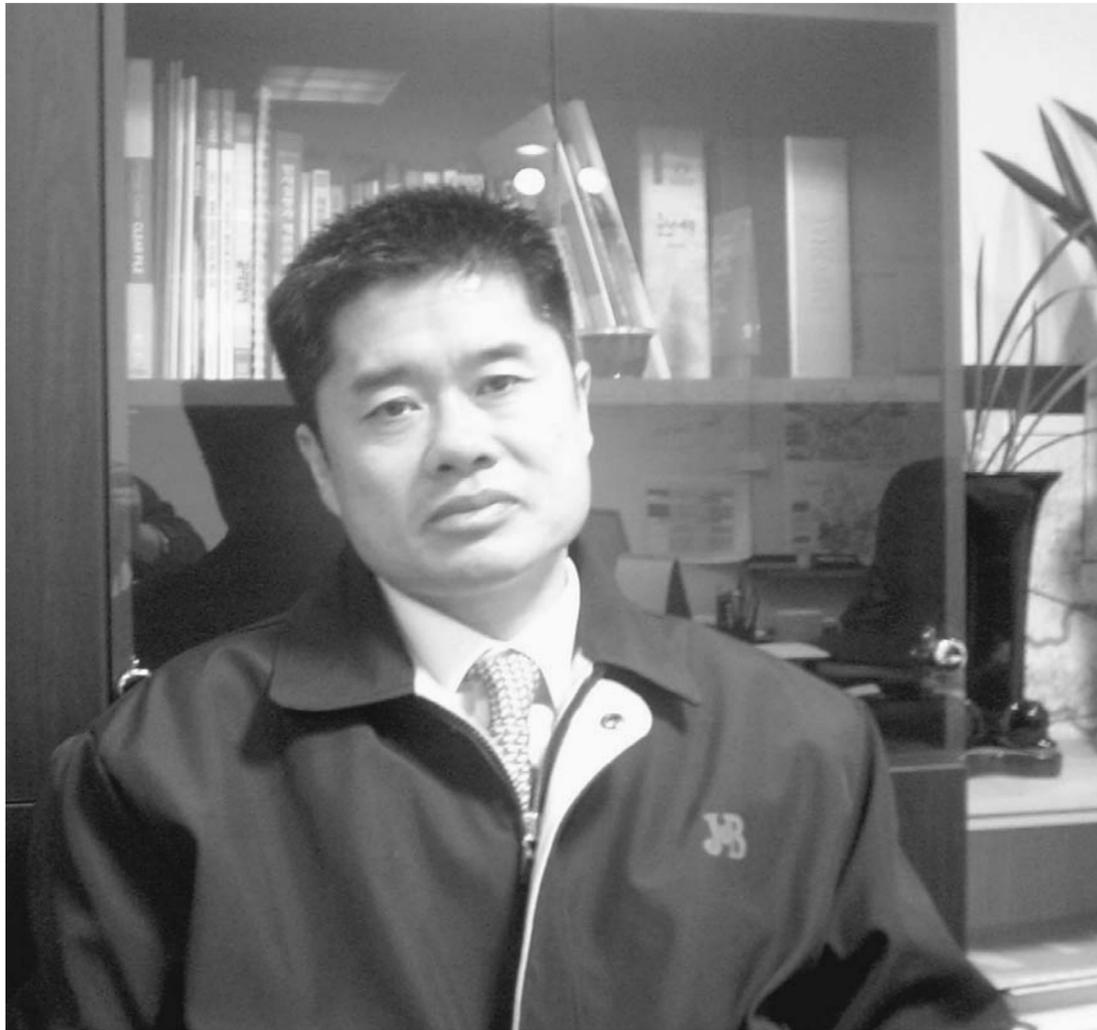
“특별한 선수는 특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케냐 선수들이 1시간 뛰면 우리는 2시간을 달려야죠. 롤 모델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케냐 선수를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 한국 선수들은 전국체육대회를 올림픽대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말하지만 운동하지 않아야 할 선수는 이봉주였어요. 스피드 떨어지지, 키 작지. 그런데 그는 자신이 특별한 선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남보다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거죠. 좋은 재목이라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고 국내 1등만 생각하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김재룡 감독은 선수 스스로 특별한 선수란 생각으로 훈련을 잘 소화하면 얼마든지 세계 무대를 노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선수들의 의지력을 거듭 강조했다.



1991년 제62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김재룡.

# 김봉유 수석무역 이사(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800m 금메달)



## “지도자 육성부터 체계화해야”

**김봉유(1967년생)** 한국 육상경기계의 자존심이자 아시아에서 아성이었던 남자 800m. 이 종목에서 한국은 1980~1990년대 아시아경기대회 4연패를 했다. 그 가운데, 김봉유가 있었다. 그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800m 금메달, 1500m 은메달을 땀다. 발군의 실력으로 달렸던 김봉유, 지금은 육상경기계를 떠났지만 여전히 달리고 있다.

☞ **2000년 개인 사정으로 육상경기계를 떠나셨는데, 근황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위스키 판매수입제조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있습니다. 이 일도 해 보니, 육상경기와 똑같아요. 운동할 때 살아가는 방식대로 조직에 적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충분한 보상도 있고요. 운동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한때 한국이 아시아 남자 육상경기 800m에서 최고였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요.**

“많이 아쉽고 미안하죠. 1997년 말부터 2000년까지 대표팀 코치를 했어요. 개인 사정으로 후배에게 물려주고 나오긴 했지만, 남자 800m는 한국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4연패를 한 종목인데 제가 떠난 뒤 한국 중거리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중간주자로서 바통을 잘 넘겨줬어야 했는데...”

☞ **현재 마라톤 동호인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생활체육으로서 한국 육상경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마라톤 동호인 모임은 2003년 12월 24일에 시작해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연관돼 생활체육 마라톤을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함께 하다 보니 협동력, 단결심, 자기계발에 도움도 되고, 엘리트들이 하는 육상경기는 경쟁이 우선이지만, 동호회는 즐거움이 더 많지요. 함께 뛰는 일반인들에게 제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는 것이 좀 특별한가 봐요.”

☞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을 때가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50m 남겨놓고 뒤돌아보니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피니시 지점만 가면 1등 이구나 싶었는데, 피니시하고 나서도 믿기질 않았습니다. 진짜 멍 했어요. 시상대에 올라가서야 1등 했다는 것을 제대로 느꼈으니까요. 1500m를 이틀 전 뛰어서 2위를 했지만, 800m에서는 1등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웃음)”

☞ **한국 육상경기의 도약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 육성이 아닐까 싶어요. 육상연맹도 지도자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직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사랑하고 후진 양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10년, 짧게는 5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는 현장을 누비면서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마라톤을 하고 있다. 다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육상 노하우를 전수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1991년 남자 15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울 때의 김봉유.

# 백승도 대우자동차판매 마라톤 감독(1998년 후쿠오카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만m 금메달)



## 지도자로 다시 뛰는 원조 장수 마라토너

**백승도(1968년생).** 재능 많은 선수였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것만 아니었다면, 한국 육상경기 역사에 더 큰 획을 긋지 않았을까. 백승도 대우자동차판매마라톤 감독. 그는 1987년 5000m에서 한국신기록(이 기록은 19년 동안이나 유지됐다)을 세우고, 1990년 U-19 아시아선수권대회 1만m에서 우승한 뒤 이듬해 마라톤에 입문했다. 이후 1992년 조선일보마라톤 우승, 1993년 런던마라톤 7위, 1994 도쿄마라톤 6위, 2002년 도쿄마라톤 5위, 1998년 동아마라톤 2위 등을 기록했고, 중간에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5000m에서 동메달을 땄다.

### 2002년까지 현역으로 뛰며 '원조 장수 마라토너'라는 별명을 얻었지요?

“제가 스물아홉, 1996년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주위에서 은퇴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해 왔고 미혼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 거죠. 저는 더 뛸 수 있었죠. 마침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선발전까지 뛰겠다고 했어요. 마라톤에선 이봉주 선수가 성적이 좋아서 대표로 발탁됐지만, 트랙에선 평가전을 거쳐 제가 선발됐어요. 1997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따니까 은퇴 얘기가 쏙 들어갔지요.”

### 마라톤으로 종목을 바꾸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1991년에 마라톤에 첫 참가해서 2시간 13분 19초로 4위를 했어요. 무난한 데뷔전이이었죠. 이후 전국체육대회에서 2시간 15분대를 뛰면서 2위를 했고, 세 번째 동아마라톤에서 10분대로 들어와 3위를 했어요. 네 번째 뛴 것이 1992년 조선일보마라톤이었는데 2시간 11분 6초로 우승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마라톤 레이스에 참가하여 12분을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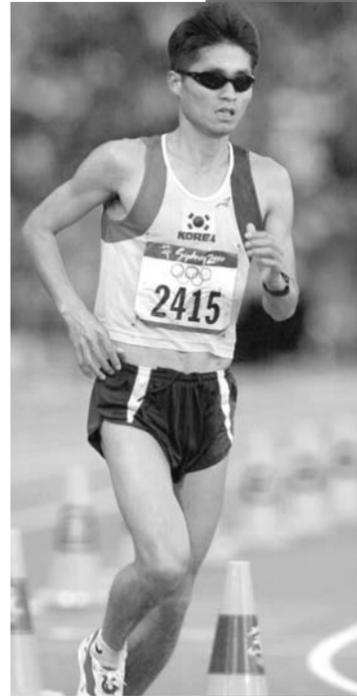
### 부상도 있었고, 올림픽에선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일이지만 1992년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도쿄마라톤에서 일본 모리시타 선수가 37.5km 지점에서 스펀지로 머리에 물 뿌리는 걸 감동 깊게 봐서 그해 동아마라톤에서 나도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스펀지로 머리를 축이고 정신을 차려 피니시라인까지 승부를 보겠다 했는데 스펀지를 못 잡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고 선두권에서 멀어졌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그때 2등을 했으면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건데……. 1996년은 마라톤의 완속기였는데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동아마라톤에 맞춰 훈련하다 갑자기 보스턴으로 가게 되면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것도 아쉬워요.”

###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대하면 어떠세요?

“선수 얼굴만 보고도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건 어렵고 여러모로 부족해요. 지금 선수들은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훈련에서 감독이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해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라톤은 훈련량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도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마라톤 중흥기에 없어서는 안 될 주자였던 백승도. 지금 그는 지도자로 다시 서 땀 흘리며 달리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회 마라톤에서 백승도.

# 임춘애

어린이 육상경기 코치(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중·장거리 3관왕)



## “초등생들에게 육상경기를 가르쳐요”

**임춘애(1969년생).** “아직도 라면소녀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다. 오보 혹은 과장 보도였지만 그만큼 국민들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 육상경기계에서도 비주류이던 한국이 육상경기 강국 중국을 제쳤다. 한 가냘픈 소녀가 800m, 1500m, 3000m를 휩쓸었다. 요즘이라면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다. 그게 부담스러웠고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했지만 여전히 육상경기는 그를 있게 한 고향이다.

###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을 했을 때의 기분이 기억나세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중국 선수와 기록 차이도 많이 나고, 등수 안에만 드는 게 최대 목표였어요. 게다가 추가 선발이 되다 보니 시샘 받는 것도 있었죠. 원래는 1500m, 3000m만 나설 예정이었는데 연습 때 800m 기록이 잘 나와서 될 게 아닌데 뛰게 된 거예요. 게다가 800m도 잘 뛰려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2등을 했는데 앞선 인도 선수가 실격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딴 거죠. 다른 종목도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못 뛴 데다 제가 평소 기록보다 10초 이상 잘 뛰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 국민적 영웅이 되셨는데 부담이 컸죠?

“여느 육상경기선수 중 한 명이었지 주목받는 선수가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3관왕이 되고 정신이 없었어요. 기분이란 것도 없이 멍한 상태였어요. 옛날에는 훈련이 스파르타식이라 맞으면서 운동을 했죠. 어쩌다 하루 선생님께 안 맞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코치 선생님이 곧 신이잖아요.(웃음) 메달이나 포상 이런 것은 신경도 안 쓸 때고, 메달 따고도 혼나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니 부담스러웠어요. 더 잘 뛰어야 하나 싶어 무섭기도 했어요.”

### 아시아경기대회에 추가 선발로 뛰게 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부상 때문에 못 뛰었는데, 그 후 전국체육대회에서 기록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 두 달 전에 발탁이 되어 이 때문에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국가 최고 권력층에서 기록이 좋은 사람이 나가야 한다고 해서 선발이 됐다는……. 그런 형편이니 만약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결과가 나쁘면 저는 찬밥 정도가 아니라 죽을 사람이었던 거죠.(웃음)”

###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육상경기 지도를 하고 계시죠?

“2009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시 체육회 소속이에요. 소질 있는 아이들이 3, 4명 보이는데, 부모도 설득해야 하고 멀리 보고 지도해야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 색깔도 찾으려고 하니까 정신 없는 상태예요. 선수가 될 만한 애들이 있으면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초등학교 육상경기부 선수로 키워 볼 생각도 있어요. 부담이 크죠. 제가 가르친다니까 큰 선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시선도 있어서.(웃음)”

그저 코치 선생님께 혼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죽어라 뛰었던 소녀. 지금 임춘애는 청학동 칼국수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짬짬이 초등학생들에게 육상경기를 가르치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서 성화 봉송을 하고 있는 임춘애.

# 황영조 대한육상경기연맹 마라톤 기술위원장(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마라톤 금메달)



## “에너지 집약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것”

**황영조(1970년생).** '문주익의 영웅' 황영조가 침체에 빠진 한국 마라톤 중흥을 위해 중책을 맡았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의 마라톤 기술위원장. 그는 중책을 맡아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라톤은 한국 육상경기의 기대 종목이고 그나마 메달권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마라톤의 또 다른 신화 창조에 한창인 그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 **한때 세계적 수준이던 한국 마라톤의 장기 침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니까.**

“요즘 엘리트 마라톤이 침체돼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대회 수, 상금, 팀 등 모두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살 만한데 선수들의 기본 자세와 정신력은 이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어요. 마라톤은 매우 고통스러운 운동입니다. 집중할 때 집중해야 하는 거죠. 스타도 나와야 하고 저변확대도 필요하죠. 일본만 해도 학교에서 마라톤 교육을 해와 대중 스포츠로 정착한 지 오래입니다.”

☞ **예전과는 다른 방식을 택할 거라고 했는데요.**

“대표팀 합동훈련을 실시할 겁니다. 그동안 소속팀 개별훈련이 대세였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선수를 차출해 합동훈련을 하면서 인근에서 소속팀도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대표 선발도 좀 더 체계화해 '2배수 체제'로 갈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사후 약방문을 최소화할 겁니다.”

☞ **국제대회에서 한국 마라톤이 명예를 회복할지 관심이 높는데요.**

“마라톤은 그동안 한국 육상경기의 간판이었습니다. 국제대회 참가 목표는 무조건 메달입니다. 나도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1년 6개월 준비하면서 완주를 세 번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해냈습니다.”

☞ **외국인 코치 영입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민족 스포츠입니다. 코치를 영입한다면 일본 쪽일 텐데…….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최고를 위한 선택이라면…….”

☞ **은퇴가 빨랐는데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목표한 것을 다 이뤄 은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후회해 본 경기는 한 번도 없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다만 목표를 빨리 이루고 뛰는 걸 그만뒀 팬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있죠.”

'민족 스포츠' 황영조의 입에서 시종 이 말이 빠지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 한국 마라톤은 과거 우리의 아픈 역사와 함께해 왔다. 그래서일까. 황영조는 홈그라운드인 마라톤이 강한 나라에서 그것도 일본을 누르고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는 데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 이봉주

삼성전자 육상단(2001년 보스턴마라톤대회 1위,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대회마라톤 2위)



## “훈련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이봉주(1970년생)**.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를 말할 때면 늘 따라붙는 수식어다. 그는 2009년 자신의 41번째 마라톤 도전을 마지막으로 운동화 끈을 풀었다. 자신의 나이보다 많은 횟수의 도전은 한국 마라톤의 역사였다. 이봉주는 스포츠에서 ‘도전’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음을 보여 준 산 증인이다. 1993년 호놀룰루국제마라톤 우승을 시작으로 숱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그를 빛나게 하는 기록은 따로 있다. 바로 4연속 올림픽대회 참가 기록, 세계 마라톤 역사에 길이 빛날 대기록이다.

### ☞ 은퇴 이후 어떻게 지내시나요?

“큰 짐을 내려놓은 느낌입니다. 그동안 부담도 적지 않았고요. 한편으로는 달리는 걸 못해 아쉬움도 교차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위해 마련된 영어강좌를 듣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죠.”

### ☞ 20년을 계속 달리셨는데, 비결이 있었나요?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올림픽대회에서 불과 3초 차로 은메달을 따서 금메달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죠.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좀 더 힘을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무엇보다 ‘도전의식’이었어요. 기록이나 메달도 그렇지만 마라톤 자체가 목표가 된 거죠.”

### ☞ 그만큼 마라톤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텐데 앞으로 어떤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 마라톤을 뺀 인생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죠. 할 일이 많지만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해서 후배 양성에 주력할 겁니다. 틈만 나면 강연회를 찾아가 듣고 있어요. 그동안의 현장 경험에다 이론을 쌓아 지도자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 한국 마라톤이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수들이 힘든 걸 하지 않으려 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데 그래선 이길 수가 없지요. 오래, 많이 달리는 훈련을 해야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훈련에다 경쟁의식을 갖고 뭔가 이뤄 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소극적인 것 같아 아쉽죠. 맹목적이 아닌 뚜렷한 목표의식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 자신의 기록이 언제 깨질 것 같나요?

“기록은 언제든지 깨지게 마련이죠. 선수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일정 단계만 넘기면 좋은 기록이 나올 겁니다. 짧은 거리에서의 기량은 많이 좋아졌어요. 스피드 면에서 말이죠.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고요.”

이봉주는 인터뷰 내내 ‘마라톤은 정직하다. 훈련만큼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라톤은 우리의 육상경기 종목 가운데 메달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종목이 아니냐면서 한국 육상경기를 이끌 종목으로서 마라톤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지도자로서 다시 마라톤 스타트라인에 선 이봉주. 그의 레이스가 주목된다.



2007 서울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이봉주.

# 이진택

국가대표 후보팀 도약파트 감독(아시아경기대회 남자 높이뛰기 2연패)



## 3등의 소중함 일깨운 높이뛰기의 대명사

**이진택(1972년생).** 힘찬 도움닫기, 날아올랐다. 바는 제자리.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도약을 했던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 진출. 한국 육상경기사에 한 획을 그었다. 다음 올림픽대회에선 메달을 기대할 만했다. 그러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시드니 올림픽대회에서 예선 탈락했다. 이진택은 한국 높이뛰기의 대명사였다. 1992년 한국신기록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림픽대회 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4회, 유니버시아드대회 5회 연속 참가,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를 이룬 그는 국가대표 후보팀 전임 지도자로 도약파트 감독을 맡고 있다.

### 올림픽대회 메달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겠지요.

“늘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었어요. 시드니 올림픽 때 메달 가능성이 커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몸 상태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올림픽대회 전 독일로 혼자 전지훈련을 떠나 위탁교육을 받았는데 기술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혼자 있으니 불안감이 컸고 우울증도 왔죠. 완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 1999년 세비아 세계육상경기선수권 6위는 한국 육상경기계의 경사였는데요.

“한 높이만 더 뛰어도 3, 4등을 다룰 수 있었는데 무척 아쉬웠어요. 최고 높이에 마지막 순간을 맞추지 못한 거죠. 스스로도 놀라고 가능성을 크게 갖는 계기가 됐어요. 한 단계 오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으니 흐름을 잘 읽어야 했는데, 지금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도 대단합니다. 3연패도 가능했지요.

“1994년 2등, 1998년, 2002년에 1등을 했죠.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 대표로 첫 발탁됐는데, 참가하지 못했어요. 대회 직전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다친 겁니다.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개막 일주일 전 한강에서 울었죠. 죽고 싶었어요. 과연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후 체력을 다져 전국체육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그 전이라면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내가 다시 할 수 있구나’ 하고 3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룰런의 계기였어요.”

### 가르친다는 것, 할 만하세요?

“어려워요. 차츰 노하우가 쌓이고 있는데, 코치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대학 육상경기가 잘돼야 유소년과 실업 모두 활성화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업팀에 많이 가는데, 실력 있는 애들만 데리고 가니 메달 전쟁이 되는 거죠. 선수들도 계약금에만 관심을 두고, 제일 약한 그룹이 대학입니다. 지원을 못 받으니까 대학들도 육상경기부를 없애요.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육상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진택 감독은 선수들이 자기 종목에 미쳐야 성공한다고 했다. 신분 불안에다 박봉에 육상경기계를 떠나는 지도자가 많아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한국 육상경기에는 절호의 기회죠. 이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2002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높이뛰기에서 2연패를 한 이진택.

# 이진일 국가대표팀 코치(아시아경기대회 800m 2연패)



고교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는 이진일 코치(가운데).

## “비운의 스타에서 지도자로 재기”

**이진일(1972년생)**, 아시아 중거리의 1인자였고 세계 정상권의 기량을 뽐냈다. 1994년 세계 7위인 800m 아시아 기록(1분 44초 14)을 세우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이듬해 감기약 때문에 금지약물 복용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그 탓에 이진일에겐 '비운의 스타' 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2년간 선수 자격 박탈.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로 재기했지만 지친 심신은 그가 트랙에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를 달성하고 남자 800m 한국기록을 15년째 보유한 그는 국가대표팀 코치 겸 대한육상경기연맹 훈련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 현역 시절, 스스로 어떤 선수였다고 생각하나요?

“아시아는 생각하지 않았고 세계를 봤어요. 물론 아시아기록을 깨기 전에는 아시아 1위가 목표였습니다. 한국신기록도 1994년 18년 만에 켜는데, 그만큼 노력했어요. 1993~94년 아시아 1등을 했지만 기록에 더 신경을 썼어요. 일기장에 매일 기록을 적고 그것을 깨자고 다짐했죠. 아시아기록을 깨고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할 차나, 감기에 걸려 먹은 약 때문에……. 그것만 없었다면 확실히 한 획을 긋지 않았을까. 자신도 있었고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가는 꿈도 이를 것 같았죠.”

###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로 재기에 성공한 직후 은퇴했는데요. 2년 뒤 시드니 올림픽대회에서 한국 선수론 첫 8강 진입을 기대했는데…….

“체력 면에서 은퇴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힘들었어요. 징계만 먹지 않았어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그만두려 했죠. 학교 강단에 서는 게 꿈이었어요. 내가 있으면 후배들도 크지 못하니 올림픽 역사를 만든 뒤 학교로 가서 꿈을 이루고 싶었죠. 어쨌든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전부터 은퇴할 마음이었습니다. 2000년 올림픽대회나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욕심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그러나 제2의 인생을 사는 데 자꾸 지연되니까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은퇴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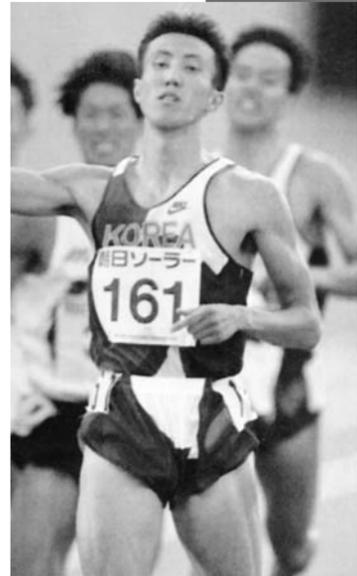
###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한 뒤 재기까지 어땠나요?

“징계가 풀리면서 다시 운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징계를 받고 짐 싸서 대구로 내려갔을 때는 거의 폐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여기서 운동을 그만두면 금지약물 복용 선수로 영원히 꼬리표가 달린다. 아무리 감기약을 먹었다 해도 남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다시 뛰어야 하지 않겠냐.’ 지금도 도핑기사 나오면 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재기하지 않았다면 아예 그렇게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웃음)”

### 지도자로서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이후를 어떻게 보나요?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훈련한다면 우리도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육상경기는 기록 경기라 이번이 별로 없지만 가능성을 발굴하는 게 우리 할 일인 거죠.”

이진일 코치는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8코스에 우리 선수가 있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육상경기의 도약을 다짐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800m에서 1위로 들어오는 이진일.

# 이영선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 (아시아경기대회 창던지기 2연패)



## “소외된 필드 종목, 특히 투척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영선(1974년생)**. 그가 힘껏 창을 던졌다. 곡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그 곡선은 인생과 닮았다. 서서히 올라가다 피크에 도달해 내려오는 곡선을 보자면, 이영선은 여전히 창과 인연을 맺고 있다. 현역에서 떠났지만, 선수들을 지도하며 또 다른 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1987년 창을 잡은 이후 1991년 충북체육고 시절 한국 기록을 네 차례나 작성했다. 1993년 버팔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비롯해 2000년 자카르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했고 1998년,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를 하는 한국 여자 창던지기의 간판이었다.

### ☞ 1990~2000년대 여자 창던지기의 에이스였습니다.

“국가대표로 생활하면서 혼자 있는 기간이 길었어요. 1991년 대표에 첫 발탁됐을 때는 여자 선수들이 많았어요. 단거리, 중·장거리, 포환 등 십수 명이었거든요. 그해 여름 이후 올림픽대회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여자 선수들이 거의 선수촌을 나갔어요. 이듬해에는 혼자였는데, 지금과 달리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외롭게 운동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지 않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태릉에는 창을 던질 환경이 안 돼 불편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다 좋았어요. 요즘 보면 여건이 좋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 ☞ 1998년 아시아경기대회 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선발전에서 탈락했어요. 1996~1997년에 발목을 다치면서 슬럼프에 빠졌는데, 후배가 들어왔어요. 몸이 안 좋다 보니 소극적이 되고 선발전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교체되면서 출전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연습했으면 말이 많아서 제대로 안 됐을 텐데, 호주로 전지 훈련을 갔어요. 운동만 했어요. 금메달 딸 거란 기대는 못했어요. 기록으론 3위여서 부담이 없었죠. 색깔에 상관없이 꼭 메달은 따고 싶었어요. 떨어뜨렸다가 보내 준 사람들이 있으니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편한 마음으로 던졌고 금메달을 따죠.(웃음) 2002년에는 우리나라(부산)에서 하다 보니 부담이 컸죠. 그때도 참가를 앞두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참가하게 됐어요. 그때까지 기록은 4위였는데, 이상하게 (금메달을) 따어요. 대회를 앞두고 기술을 보완한 게 맞아떨어졌어요.”

### ☞ 현재 육상경기연맹 필드 창던지기 담당 위원으로 선수 육성에도 참여하고 계시죠?

“지도자로 나선 지 3년 됐어요. 연맹 일에도 관여하고 있죠. 필드 종목은 육상경기에서도 소외당하는 느낌이랄까, 특히 어느 종목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투척이에요. 단거리는 정책 종목이니까 일정 정원을 만들면서, 던지기는 한 명만 뽑아야 한다는 식이죠. 그리고 저는 여자 대표로 기술위원을 하는 거지, 던지기 대표는 아니에요. 2006년 도하에서 금메달이 나온 건 바로 창이었는데 말이죠.”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에서 금메달은 창던지기에서 나왔다. 반응은 조용했다. 단거리에서 금이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한 종목만이 아닌 육상경기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위원의 아쉬움이자 당부였다. ‘창던지기의 여왕’ 이영선은 한국 최초로 2011년 국제육상경기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002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창던지기에서 우승한 이영선.

# 박재명

창던지기 선수(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창던지기 금메달)



## “한국 육상경기에 한 획을 긋고 싶어”

**박재명(1981년생)**. 그의 창은 가장 멀리 날아갔다. 포물선도 멋져 보였다. 강원도 평창의 시골 소년에게 그것은 하나의 매혹이었는데, 그 매혹은 세월이 흘러 한국 창던지기의 '희망'으로 우뚝 섰다.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 육상경기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딴 박재명 선수. 그는 강원체고 3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돼 10여 년째 한국 창던지기의 간판으로 활약하고 있다.

### ☞ 육상경기 중에서도 특히 창던지기 종목에 입문한 계기가 있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경기를 했어요. 뛰는 것도 했고, 포환던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 김춘희 선생님(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원반던지기 참가)이 창던지기를 권하셨습니다. 중3부터 창던지기에 집중하게 됐죠. 창던지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일 멀리 날아가니까요.”

### ☞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컨디션은 어땠나요.

“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준비를 잘 해왔어요. 날씨가 춥긴 해도 몸은 최상이었습니다. 금메달의 혜택이 정말 많아서 기대하고 있었죠. 군 문제도 있었고,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4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 ☞ 외국인 코치와 처음 호흡을 맞춰보니 어떤가요.

“첫 외국인 코치셨던 예사(우트리아이넨) 코치에게 외국의 기술도 접하고 국제대회에서도 많이 참가하여 두려움을 없앴어요. 국제 대회에 나가면 긴장한 탓에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더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한 결과가 나오는 식이죠. 2005년 무렵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태릉 선수촌 밖으로 나가서 6개월 정도 운동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극복했습니다.”

### ☞ 남자 창던지기 한국기록(83m 99) 보유자로서 앞으로 기록 경신에 대한 전망을 한다면.

“세계의 벽이 마냥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몇 미터만 더 던지면 충분히 메달권에 들 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있으니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 ☞ 한국 육상경기계에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제가 한국 육상경기에 한 획을 그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면 진짜 한국 육상경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육상경기의 박재명’ 하면 보통사람들도 누군지 떠올릴 수 있으면 해요. 제가 육상경기에선 처음으로 외국인 코치에게 지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배운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큼니다.”

박재명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선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지원이나 훈련 여건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환경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되길 기대했다.



2009년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창던지기를 하는 박재명.